

관장 횡령 의혹 남부노인복지관, 결국 위탁 법인 변경

자부담금 문제 Key, 법인 전입금 명시 없기로 11개 관내 복지관 위탁운영 개선 선도 기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전경.

현 관장의 횡령 의혹이 불거진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이 결국 위탁 법인을 변경한다. 화성시가 관리부문에 대한 책임을 물기로 한 것이다. (관련 기사 본보 865호 1면 참조)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은 현 관장이 억원 단위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현재 화성시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은 2023년부터 경기도 소재 한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횡령 수사 중인 관장은 2018년 부임한 후 2023년 5년 임기의 재임에 성공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즉각적

인 조사에 나선 화성시는 위탁 운영과정에서 명시된 법인 전입금을 횡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고, 위탁 법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직 위탁 기간이 남아있지만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위탁 운영기관을 변경하기로 했다”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기관 공모는 3월 4~5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4년 4월 1일부터 5년간 화성시남부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된다.
특히 화성시는 법인 전입금을 명시하지 않고, 신청법인이서 자율적으로 자부담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의 경우 서울에서 멀어 지리적 위치가 불리한 상황에서 자부담금이 건실한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제한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낮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규모 복지법인의 참여를 배제시켰고, 현 법인이 위탁운영하게 됐다 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참여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화성시의 계획이다. 다만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를 실시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법인만 신청하면 단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향후 11개에 달하는 관내 복지관의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현 화성시 중앙년노인복지과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법인을 선정해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투명한 다수의 법인이 모집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은 연면적 620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향남읍에 소재하고 있다. 2008년 10월 문을 연 이후 프로그램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장거바독실, 당구장, 강당, 사무실, 경로식당 등을 갖추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핵심 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화성갑 대진표 '홍형선 VS 송옥주 VS 홍성규'



공영에 예비후보, 개혁신당 입당 고려

김홍성 예비후보, 민주당에 재심 신청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화성갑 지역구 대진표가 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 브리핑을 갖고 홍형선 예비후보를 화성갑 단수공천자로 확정했다.

단수공천이 확정된 홍형선 예비후보는 화성 출신으로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대학원을 거쳐 연세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차관급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홍형선 예비후보는 단수공천 확정 후 “공천 확정에 감사드리며, 화성시 서남부권을 매력적이고 참좋은 화성시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22일 송옥주 현 국회의원을 화성갑에 단수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송옥주 의원은 “응원해 주신 당원과 시민 여러분 덕분에”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 출신으로 연세대를 나와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획득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됐다. 독립유공자인 차병혁 선생의 외손녀이다.

진보당에서는 임지갑치 홍성규 화성시위원장을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다만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구 후보를 통합할 예정이다. 홍성규 후보는 “차후 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통합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갑 지역구 공천 탈락자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최영근 후보는 공천 확정 전 화성을 지역구로 출마지역을 변경했고, 공영에 후보는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홍성 후보가 23일 공천과 관련해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도로 위 폭탄 '포트홀' 피해 속출, 화성시 손놓나

폭설 2일간 민원만 300건 특단 대책 절실

최근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해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사고·피해 민원이 빙발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트홀은 도로에 생긴 구멍으로 차량 통행 시 휠 혹은 바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심하면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발생 원인은 아스팔트 불량, 노후화, 겨울철 제설 작업으로 인한 도로 사이로 빗물이 들어갈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화성시 곳곳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로

인해 차량 파손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기준 2일 동안 화성시에 접수된 사고민원만 100건, 신고로 200건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포트홀로 인해 수리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폭설 후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을 전했다.

포트홀로 인해 차량 옆면이 찢어진 화성시민은 “인근 수원시는 포트홀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팀을 구성해 시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데 화성시는 이에 대한 대책만도 없고 대응도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포트홀은 특히 밤에 다닐때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포트홀도 보인다. 이에 대한 빠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민원으로 들어온 포트홀에 대해 1-3일 내에 보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부족하다고 느껴 도로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며 “도로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될 프로그램은 대중교통 혹은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포트홀이 생긴 구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선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Weekly Issue

- 안상교 (㈜늘푸른 대표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2면
- [22대 총선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석호연, 한정민 예비후보 7면
- [스타트업 탐방] (주)오톨 오준호 대표 12면



화성시 곳곳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한 포트홀이 생겨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SAMPYO Industry

나눔경영을 실천하며 흔들림 없는 핵심영역을 키워가는 기업

(구)농수산대학 이전 부지 활용방안 3월 결정

문화예술 복합타운 조성에 1850억원 투자

(구)농수산대학 이전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타운 추진 방안이 빠르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봉담읍 동화리 11-1 일원 (구)농수산대학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총 1억 1000만원을 투자한 이번 용역은 지난해 2월 시작해 오는 3월 21일 최종 보고회가 열린다. 용역에는 수요예측 등 기본 조사에서부터 경제성 등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사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용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곳에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예술 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봉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가 크다.

시는 당초 이곳에 최대 2000석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복합문화예술타운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종합 창작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총 185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1억 8000만원을 투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후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2025년 공사 발주 후 효행지구, 봉담3지구 등의 입주와 맞춰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화성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농수산대학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타운이 조성되면 기존의 화성시민대학, 생활문화장작소 등과 함께 화성시 문화예술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안상교 (주)늘푸른 대표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11대 부회장 활동과 6대 공약 통해 많은 의원들의 공감 얻어

안상교 (주)늘푸른 대표가 화성상공회의소 제 1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대표는 21일 화성상의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4년 임시의원총회에서 의원 100명 중 9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9표를 얻어 경선에서 27표를 얻는데 그친 김석태 대표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업인들의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과의 소통, 환경·안전·소방 분야의 계도 우선 협의, CEO 전문교육과 기업 발전에 도움되는 정보 제공 강화, ESG경영 적극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노력, 각 기업인 단체 활성화 등이다.

안 대표는 즉석조리식품, 양념젓갈, 절임식품 제조/식품 도소매를 하는 (주)늘푸른의 대표로 제 11대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호연 기자 news@ihnews.com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은 안상교 대표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GTX-A·C 연장 위해 적극 협력키로

경기도-국토부-화성 등 8개 지자체, 상생협약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 및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김태홍 충청남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GTX A노선 평택 연장사업과 GTX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사업 본선 개통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GTX A·C노선 연장사업 수요 확보,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타당성 검증,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2월 덕정-수원 노



GTX 연장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 중이다.

선으로 추진 중인 GTX C노선을 화성·오산·평택까지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선 연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동탄2동 육교 보수공사, 8억원 들었는데 물고임?



오름교 보수 공사 후 배수로 근처에 물이 고여 있다.

육교 건조 상태에 따라 하자보수 공사 진행 예정

동탄2동 육교 4곳의 보수공사에 물고임 등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동탄출장소는 이번 동탄1권역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90일간 동탄 2동에 있는 육교 4곳의 보수를 위해 총 사업비 8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파주에 본사를 둔 오복ENC에서 진행했다. 당초 기존 상판을 걷어내고 강판 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진행하려 했으나 오름교의 경우 상판을 뜯어낸 내부 상태가 녹이 심해 강판을 교체하는 등 2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 기간보다 15일이 추가됐다.

동탄출장소 담당자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준공검사 시 물고임 등 하자가 발견됐으나 날씨가 건조해지면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준공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24일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내린 비와 눈으로 육교가 젖어 있어, 날씨가 따라 육교가 건조해진 시점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공 책임자인 오복ENC의 방준수 소장은 육교 4곳의 하자는 도약교 2개소, 오름교 1개소, 푸름1교 2개소, 푸름2교 2개소 등 물고임 7개소와 색깔이 변색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신호연 기자 news@ihnews.com

민원서비스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화성시는 이로써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다.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하는데 화성시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화성시는 △시민과 함께 쓰는 희망화성 이야기 등 시민과 소통하는 기관장의 민원행정 활동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영상상성 기록장비 도입 △특이민원 대응전담부서 운영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시민의 민원사항 청취와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의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화성시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www.ihnews.com
news@ihnews.com

대표이사/발행인 민병욱 인쇄인 장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민규
(우)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정로 37-6 메트로프라자 702호

2004년 10월 13일 창간 등록번호 경기 다 01063호 본지는 신문윤리규명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화 : (031)232-1980(대표) 팩스 : (031)225-0159 E-mail : news@ihnews.com
구독료 : 평생 구독료 1백만원, 연 구독료 10만원, 1부 2,500원 / 농협 351-0076-7779-73 (주)화성신문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친화 예스팀바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동산업(주)의 예스팀바는 목분과 합성수지를 혼합해 나무의 장점을 살리고 특수공법으로 생산하므로 수분과 해충에 강하고 내구성이 탁월하여 나무보다 더 강하며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제1공장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45-17 TEL 031-366-6267 FAX 031-366-6269 E-mail kdpvc@hanmail.net
제2공장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45-29
합성목재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허브블루 6011호 TEL 031-366-5288 FAX 031-297-1834 E-mail jks8707@naver.com

권철승 의원 “5대 비전 통해 화성시 발전 이룰 것”



권철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 핵심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철승 화성병 국회의원은 22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2년간 우리 공동체와 국민의 삶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국가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물론 화성 발전을 꼭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권철승 의원은 화성시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의 도시로 보고,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고 이면의 다양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신을 뽑아달라고 했다.

권철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를 통해 국정을 조망하는 시각을 넓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장관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수석대변인이라는 핵심 당직을 맡아 화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인

으로 성장해 왔다”라면서 “중앙정치에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책임자라고 감히 자신한다”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사통팔달 △백년대계 △자족도시 △안심 사회 △성장경제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교통분야에서는 병점역 지상철도 지하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수인선 천천역 역세권 개발, 3호선 화성 연장, 봉담-병점 순환 직행버스 등을 제시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느린 학습자 교육체계 마련, 화성FC 축구 전용 구장 건설, 황도 맨발 걷기 둘레길 조성, 능1고·화산고 신설,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문화예술타운 지속성 조성 계획 등을 밝혔다.

법률·행정·경제 분야에서는 △4개구 설치, 테크노폴 허브 타운 유치 등을 들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임미숙 수원병 예비후보 “수원군공항, 폐쇄하라!”



임미숙 예비후보가 수원군공항의 폐쇄를 주장했다.

르는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에 관한 공약 남발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임미숙 수원병 진보당 예비후보가 16일 ‘수원군공항 폐쇄’를 제안했다.

임미숙 후보는 “경기국제공항신설은 사실상 군공항 이전 사업이자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화성으로 옮겨 그 피해를 전가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경기국제공항사업으로 바꿔 여론을 바꾸고자 하는 거짓 눈속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국내 대다수 공항은 적자상태고, 이전 장소로 예정된 화성 화옹지구는 매항리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호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서 “기후도지사를 자처한다는 김동연 지사는 거짓으로 출발하여 시효가 다한 경기국제공항 높이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아닌 폐쇄하고 군비 축소, 불필요한 군사시설을 없애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선거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화성갑 보궐선거 정의당 후보 출마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22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에 화성시의원의 제22대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화성시 가 선거구(봉담갑,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보궐선거에 화성시의회 정의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는 화성시 지속가능협의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화성습지 세계유산등재 추진 시민서포터즈 실행위원,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미경 후보는 “총선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느닷없는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생겼다”라면서 “2년이라는 절반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진행되는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화성에 시의원 숫자가 늘어났으나 거꾸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찾기 어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지지자와 함께 화성시의원 가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려워졌다”는 주변의 호소로 인해 출마를 결심했다”라면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하는 시의원,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의원,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위원장, 김형삼 민주노동 수원원인오산화성지부 의장, 전만규 매항리 평화마을건설추진위원장, 조재진 화성YMCA 총장, 목창환 화성시농민회 회장 등 화성시 진보세력과 지지자 등이 함께 하며 한미경 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나원주 예비후보 “화성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나원주 예비후보.

나원주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2일 “전 세계는 RE100,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전쟁 중”이라면서 “화성을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미래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할 화성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융복합지구 사업을 유치,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에너지융복합지

센터 건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 창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미국도 유사 법률을 발의한 상태에서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화성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RE100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원주 후보는 지역 내 중소기업 연구개발,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화성시를 연구, 생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하중 예비후보, ‘동탄 반려케어’ 발표



김하중 예비후보.

김하중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2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과 키우는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동탄 반려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동탄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것

으로 △동탄 데이케어 △동탄 강아지 학교 △동탄 펫시터 파견 △동탄 공공펫케어(공공반려보육체계) △내 집 앞 강아지 운동장 △반려 여행패스 등의 반려 패키지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통계를 통해 반려 등록된 반려동물은 지난해 기준 6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며 “1인 가구의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펫케어, 반려동물 건강관리, 양육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

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 가정의 경우 반려견에 대해 짚을 등 전문적인 훈련 시 시간당 10만원, 유명 트레이너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를 위해 만들어질 강아지 학교는 단순 배변 가리기, 짚을 훈련 뿐만 아니라 반려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펫테크, 문제 행동 예방 및 관리 등을 통해 비용부담 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면서 “간디가 동물이 존중받을 때 인간과 국가의 도덕성이 고양되듯이 반려인과 반려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반려친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대현 예비후보, 서동탄역 활성화 정책 발표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서동탄역 주변 활성화 및 환경정비를 위한 지역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이날 직접 봉사를 통해 동탄3동과 오산시 경계 소하천인 문시천 인근 잡초와 오수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 문제를 인식했다.

조대현 후보는 “서동탄역 주변은 저지대로 차량 진입에 대한 어려움과 주차시설이 부족해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한 곳이다”라며 △문시천 오수 정화 및 악취 제거 △논리 저류지 공원 및 천 주변 녹지 △주차타워 건립 △상권 활성화 등 환경정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는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조대현 예비후보가 문시천 인근 논둑과 잡초를 직접 제거하고 있다.

주변 정비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서철모 예비후보, 동탄호수공원 내 별마당도서관 건립 공약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동탄호수공원 내 별마당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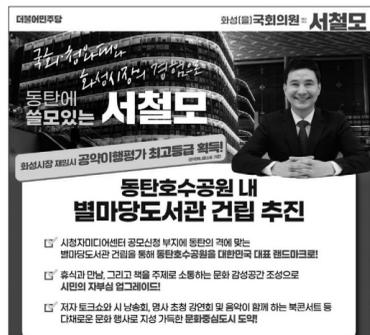
서철모 후보는 별마당도서관 건립은 경기남부 시청자미디어센터 공모 부지 선정에 있어 무산된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동탄의 격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동탄호수공원 내 별마당도서관이 들어선다면 호수공원 일대가 동탄을 넘어 대한민

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별마당 도서관은 책으로 소통하며 지적인 유희와 낭만적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감성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자 토크쇼, 시 낭송회, 명사초청 강연회와 음악이 함께하는 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더해 동탄이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진석범 예비후보, 전문가 구성 ‘특보단’ 출범



진석범 예비후보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보단 단원들과 임명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10총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보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보단은 교육, 언론, 법률, 소상공인, 서민금융,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조윤정 특보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에 대한 공식 임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를 계기로 진석범 후보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특보단은 진 후보가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들은 동탄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선거

전략을 세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진 후보는 “특보단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 동탄을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동탄지역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전문성과 열정, 노력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석호현 예비후보가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석호현 화성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9일 실천공약 시리즈 7호로 ‘특성화고 육성 및 인구밀

석호현 예비후보 “특성화고 육성·인구밀집 지역 고교 신설”

집지역 고교 추가 신설’ 방안을 밝혔다.

석호현 후보는 “100만 특례시를 향한 출발이 시작된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수원특례시 130만명을 넘어서는 거대도시가 될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고교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석 후보는 봉담2·3지구, 효행지구, 진안지구 등 화성병 지역의 지속적인 신규 인구 유입 여건을 설명하고 “부족한 교육여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들의 불안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봉담의 경우

봉담1고와 봉담2고 확정으로 고등학교 수용율 30%대라는 위험수위를 넘기는 듯 했지만, 계획된 택지지구 개발 완료시점에 또다시 수용율 불균형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면서 “혼란을 초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신설고등학교 추가를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반도체, 예·체능에 특화된 특성화고교 육성과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학부모, 교육전문가,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임명 앞두고 논란

12대 상임의원·일부 의원, 현 사무처장 연임 강력 요청

화성상공회의소(이하 화성상) 내에서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제12대 상임의원과 일부 의원이 능력 있는 현 사무처장을 연임시키자는 요청서를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집단 요청서를 제출한 일부 상임의원은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자리는 많은 퇴직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보직이지만 2만 8000여개의 기업과 4000개 회원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며, 88명의 직원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로만

드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3월 11대 회장 취임 당시에는 검증된 인물을 찾지 못해 5개월간 사무처장이 공석이었다.

이후 2021년 7월 공무원 시절 능력이 검증된 현 사무처장을 추천받아 채용한 바 있다.

화성특례시를 앞두고 할 일이 산적한 화성상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화성상의 경험, 조직 장악력, 기업인, 공공기관, 조직 내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강한 추진력을 지닌 현 사무처장의 연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3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한 화성상의 사무처장의 임기를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사무처장의 교체 시기를 회장보다 1년 늦게 하고, 차기 회장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 채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화성상의 사무처장은 임기 3년으로 1회 연임까지 가능하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박준남 경동산업(주) 대표, 양감기업인협의회 회장 취임



박준남 제11대 양감기업인협의회 회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양감기업인협의회는 20일 양감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감기업인협의회 회

원과 내빈 등 6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감기업인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2022년부터 2년간 회장을 역임한 오동현 회장이 이임하고,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갈 박준남 회장이 취임하며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감기업인협의회는 2004년도에 구성되어 그동안 전인 회장님들께서 연임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운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11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박준남 회장은 여러 조직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리더로 기대가 크며, 상의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동현 이임회장은 "전인 회장님들의 공로와 집행부 임원들의 수고로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더 많은 교류와 정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함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준남 취임회장은 "이번 11대는 20주년 성년이 되는 해에 더 뜻깊고 활기찬 기업인협의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다"며 "탄남과 인연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양감기업인협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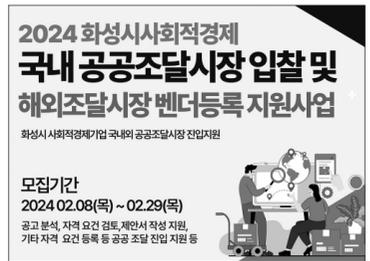
이어서 경동나비엔신재생 최지연 대표로부터 1004만원의 양감 관내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양감기업인협의회는 94회 원사가 관내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 돌봄, 관내 행사 지원, 기업인 간 동아리 활동 등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B2G 판로 경쟁력 강화와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2024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국내

공공조달시장 입찰 및 해외조달시장 벤더(공급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B2G(기업-정부 간 거래) 판로 확대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나라장터 공고 분석 및 입찰 참가 자격 검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지원 △입찰 제안서 작성 컨설팅 △나라장터 입찰공고 분석 및 메일링 서비스 △해외조달시장 벤더 등록 등이다.

지원 자격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육성 사업 출신 법인으로 지원 내용별로 상이하며, 시는 심사를 통해 총 8개 기업을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52-94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조달시장 벤더 등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5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3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미국 조달시장 벤더 등록을 지원했다. 특히,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2022년과 2023년에 총 2개의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 G-PASS 인증을 획득했다.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G-PASS): 해외바이어 및 외국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조달기업임을 알림으로써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인증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시설 무료 개방

클린룸, 장비 32종 등 장비·시설 이용기업 모집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은 20일 '2024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 및 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소공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산업진흥원은 2월 19일~12월 31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기업은 클린룸 및 △항온항습챔버 △신호계측·정밀측정기 △전자파적합성 검사기 △3D프린터 등 32종의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실 교육장, 전시관 등 공용 시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화성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분류코드 기준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 소공인 또는 화성시 승인을 받은 관내 소공인이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장비 및 시설 활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에서 안내 중이며, 기업지원플랫폼 내 온라인 예약 또는 유선 예약을 통해 사용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클린룸.

가능하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화성시 소공인들의 기술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테크노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화성상의, 일자리채움 사업 통해 청년에 200만원 지원

화성상공회의소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받아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 청년 15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제조업 등 빈 일자리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신설한 취업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23년 10월 이후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화성상의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제조업 취업 청년의 노고를 응원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연계할 경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을 준비해 고용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마도기업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마도기업인협의회 회원,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경섭 (주)성화에스티 대표 이임 김정한 기백 알로이 대표 취임

마도기업인협의회는 19일 마도면행정복지센터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도기업인협의회 회원과 내빈 등 8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4년간 마도기업인협의회를 이끌었던 이경섭(주)성화에스티 대표 회장은 이임하면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김정한(기백 알로이 대표) 회장이 취임했다. 이경섭 이임회장은 화성시기업인협의회 회장에 내정됐다.

박재범 마도면장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마도면과 화성시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협의회가 마도 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합쳐달라"고 축사의 인사를 건넸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이경섭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사업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보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다"며 "마도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지향해 나아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모으고 잘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정한 취임회장은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로 성장한 협의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좋은 의견,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협의회 발전에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마도기업인협의회는 마도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76개 회원사로 구성돼 마도면 기업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회원 상호 간의 산업 정보 교환, 기술 협력을 꾀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 접수

100여개 업체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 분야 지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 다각화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관내에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약 100여개 업체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개선과 시스템개선 총 2개 분야이다. 점포환경개선 세부 지원 항목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개선 △소화·방범 설비 △살균·소독기 설비이고, 시스템개선 세부 지원 항목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이다. 점포환경개선은 최대 250만원까지, 시스템개선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분야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분야별 최대한도 내에서 세부 지원 항목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공급가격의 100%로,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청호페이지 지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화성시지원봉사센터 1층 공감소통방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영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지역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6, 02-3702-0774, 02-3702-0778)로 하면 된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클라우드펀딩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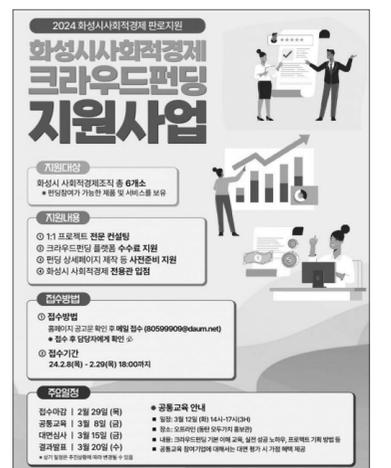
총 6개 기업 대상, 29일까지 접수

화성시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 화성시 사회적경제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심사를 통해 6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육성 사업 출신 법인이 대상이며,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선정 기업에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오마이컴퍼니) 입점 지원 △클라우드펀딩 기획 및 운영 컨설팅 △스튜디오 촬영 및 콘텐츠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클라우드펀딩 정산 수수료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영혜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아이템 시장성 검증과 자금 유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는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352-9400)로 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도교육청에 과밀학급 문제 해소 건의문 전달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 시장, 내엔 동탄권 학교 용지 추가 확보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찾아 동탄·향남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능동지구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동탄2지구, 향남2지구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젊은 층이 다수 유입돼 당초 계획 대비 학교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동탄2지구는 18개 학교 용지에 중·고등학교가 설립하거나 설립 진행 중이지만, 학급당 인원수가 도교육청 기준 28명보다 많은 약 32명에 달해 학습환경이 열악하다”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김태희 교육감에 이어 동탄출장소에서 강오순 한국도주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장을 만나 동탄권역 학교 용지 추가 확보도 건의했다.

강오순 본부장은 동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동탄신도시 내 장기 미매각 용지와 유보지 등을 활용해 학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로서,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증가로 교육 환경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속도감 있게 과밀학급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화성 into 테크노폴’ 3기 싱가포르 탐방



‘화성 into 테크노폴’ 3기 관내 고등학생이 해외탐방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체험과 견문을 넓히고 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의 해외탐방 사업 ‘화성 into 테크노폴’ 3기 탐방단이 19일 싱가포르 탐방 길에 올랐다.

싱가포르 탐방에 나선 화성 into 테크노폴은 화성 글로벌(Glocal)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탐방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 학생은 관내 24명의 고등학생으로 구성해 3박 4일 동안 해외탐방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국제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트래이어 파크 및 내셔널 갤러리 방문 △남양공대(NTU) 캠퍼스 투어 및 강연 청취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 견학 △URA도시개발청 및 시티갤러리 방문 △청소년 단체 PAKSI와 국제교류 활동 △글로벌 네트워킹 및 멘토링 등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예정이다.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현지인과 생생한 정보 교환은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으로 다각도의 접근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여정은 단순 해외탐방이 아닌 화성시의 미래를 위한 도전의 시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화성시와 대한민국 미래를 담당할 창의·융합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테크노폴 화성’ 구현을 위해 202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 3기를 맞이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부모 맞춤형 연수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운)이 14일~16일 3일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학

부모 14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자녀 성장 단계에 따른 학교 적응, 학교 교육, 소통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수는 초·중·고 급별 하위씩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대면으로 오후에는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아이를 이해하고 부모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명근 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입생 학부모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길 바란다”면서 “자녀 성장에 맞춰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교육생 모집

7개 자격증·7개 인문과정 대상

화성시가 3월 10일까지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2024년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화성시, 경기도, 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 함께하는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전환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종합상담, 취·창업 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은 협성대학교에서 이뤄지며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화성시, 경기도 거주 50세(1974년생) 이상 69세(1955년생) 이하 베이비부머 세대다.

상반기에는 카페창업 커피바리스타 2급, 꽃차소믈리에 2급, 펫푸드 전문가 양성과정, 미술심리상담사 2급, 노인전문상담사 자격과정 등 7개의 자격증 과정과 7개 인문과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교육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월 29일까지 신규 참여자 우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3월 1일부터는 신규, 기존 참여자 모두 가능하다.

교육은 3월 19일부터 실시되며, 첫날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나아들이 관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특강도 진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 연계한 중장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송린이음터, ‘2024년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송린이음터는 21일부터 ‘2024년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한 달 동안 송린이음터 운영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로 만들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1기는 △문화생활지원 △시민제안 △생태환경지원 △ICT 교육지원으로 총 4개 분야에서 11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218명의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은 △(요리)봄 도시락 △(요리)어린이가 직접 만드는 간식 △(요리)아빠의 요리 △(음악)오키리나 △(미술)아크릴화 △(체육)발레로 배우는 바른자세 △(생활)반려견과 행복한

동행 △(생활)뮤지컬 동화로 배우는 존중의 가치 △(생활)생태달빛가꾸기 △(웹툰)나노 인스타툰 작가 △(4차 산업)스마트팜 탐험대로 구성됐다.

또한 2기와 3기는 3개월 단위로 교육이 개설될 예정이다.

1기 프로그램은 3월~5월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 기간은 21일~25일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선일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송린이음터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음터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급식 조리종사자 직무연수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운)은 19일 관내 학교 조리종사자 278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힐링과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됐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모색했다.

연수는 △클리터와 푸드테라피 △식중독 예방교육 등 건강관리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 업무로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고, 식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강구해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경기도 최초의 봉안(납골) 전문 재단법인

孝園 효원가족공원

고인의 보관이 아닌 소통을 위한 곳

10년 사용료 **30만원** (관리비 별도)

www.skypark.co.kr

고객과의 약속
마음·정성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또한 최고의 서비스로 고인과 유가족께 정성을 다하며,
-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1800-2325

향남 하늘가장례식장

(기독교 천국환송 예식 전문)

24시간 상담 및 출동대기 중

☎ 031)366-4444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22

프로 추진 화성FC, '백만화성 붐업' 시작

화성시민 프로 추진 공감 내용으로 연간 프로젝트 시행



프로 추진 화성FC, '백만화성 붐업' 프로젝트.

프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성FC가 19일 시민들에게 프로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백만화성 붐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성FC가 백만화성 시민들에게 프로 추진을 위한 당위성 확보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합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회, 주민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유소년 팬 커뮤니티 프로그램, 유소년 및 외국인 축구대회 개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지역 활동 등이 연간 시행된다. 화성시민들이 프로 추진에 대해 공감할 내용들로 프로젝트가 채워질 예정이다.

화성FC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지난 1월 프로추진 TF단을 새로 구성해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했다. 첫 번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민간합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다.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위원회는 화성FC의 프로 추진에 관한 관심 유도 및 향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구성되고 있다. 추후 K리그2 진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대시민 홍보 역할도 맡아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화성FC 대표이사는 "백만화성 붐업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프로 추진에 관한 관심 유도와 분위기를 조성해 올해 추진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자원봉사센터-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 업무협약



박학순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 회장(좌측)과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회장 박학순)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세제)는 19일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선도 기능을

수행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힘쓰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을 마을봉사단으로 등록해 체계적 활동을 관리하게 된다. 또 타 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페트병 분리, 배출, 마을 가꾸기, 환경정화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계획, 실천하고, 기관·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이 나선다.

박학순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장은 "대한노인회와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어르신들의 정서지원 및 경로당 어르신 생활에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마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아르딤복지관-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 장애아동 권리옹호 MOU



장애아동 권리옹호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문상록)는 20일 관내 장애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안전망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장애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를 협력 진행해 장애아동의 권리옹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든 달려가겠다" 라는 사명선언문을 토대로 화성시 장애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원 아르딤복지관 관장대행은 "장애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와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지속가능협 "실천사업·교육 등 역할 강화"



2024년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 등 승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의 위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위해 각종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협력기구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범활동상과 지속가능한 관광상 시상, 감사패 수여, 시드투어 참가비 기부금 전달, 신입 사무국장 취임 인사, 11기 위원 위촉식

이 이어졌다. 또 '2023년 사업 결산 보고 및 승인', '2024년 사업계획' 승인도 있었다.

협의회는 승인 사업계획에 따라 SDGs이행사업, 시민사회실천 지원사업,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부(위탁사업) 등을 시행한다.

2026년까지 2년간 활동할 제11기 위원은 66명의 위원, 3명의 공동회장, 2명의 감사 총 73명으로 구성됐다.

이용근 협의회 상임회장은 "화성시, 협의회, 백만 화성시민이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사업, 시민 교육을 통해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다원, 지역공동체 구현 MOU 체결



양 기관이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우정석)과 사회적협동조합 열린공동체 다원(이사장 윤서영)은 19일 지역사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구현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의 존엄한 삶의 가치 정립을 위한 웰다잉 문화 △소통과 신뢰 중심 지

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등 시민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약속했다.

윤서영 열린공동체 다원 이사장은 "다원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위해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석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서부권역 내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에 이어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올바른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동한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 사랑의 척사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이현미)와 경기남부지부 협의회(회장 주병기)는 20일 양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액운을 털어버리고 길운 가득한 한해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남부지부협의회에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주병기 협의회장은 "척사 대회를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며 "오늘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경기남부지부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미 지부장은 "오늘 같은 마음으로 2024년도 대상자 지원을 위해 보호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노작홍사용문학관, 제3회 백조학술논문상 공모

7월 31일까지 접수, 수상작 1편에 상금 300만원과 상패 수여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은 2024년 제3회 백조(白潮)학술논문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노작 홍사용을 다룬 작가론 및 작품론, 문예동인지 '백조'와 '백조 동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 또는 백조 동인으로 활동한 개별 문인을 다룬 논문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백조학술논문상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은 2022년 11월에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을 발간한 데 이어 매년 학술논문 공모를 개최해 노작홍사용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응모 대상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신규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이다. 대학 교수, 강사, 국내외 연구소 및 교육기관 소속 연구원은 물론 문인 및 비평가, 일반대학원 재학생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3회 백조학술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공모 결과는 오는 9월 중 노작홍사용문학관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백조학술논문상 시상식은 가을에 예정된 2024년 노작문학축전에서 노작문학상 시상과 함께 진행된다.

한편 백조학술논문상의 제1회 수상작으로는 박현수 교수(성균관대)의 '백조라는 미디어와 홍사용'이 선정된 바 있다.

제2회 수상작은 백조 동인의 회고록과 상징주의 시의 공간을 다룬 김용기 연구자의 '조선의 헤데로 토포이로서 白潮時代 연구'로, 기간 '백조' 2024년 봄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의 손택수 관장은 "작년부터 공모 주제를 백조 동인으로 활동한 작가군으로까지 확장하면서 문단 및 학계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백조학술논문상 공모가 문학사의 가려진 부분을 심도 있게 조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3회 백조학술논문상의 자세한 공모 요강은 노작홍사용문학관 누리집(www.nojak.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병점1동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병점1동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율방범대(대장 서진형)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중 하나인 척사대회를 17일 별말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권철승 국회의원,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병 당협위원장, 오문섭 화성시의회 부의장, 김미영, 명미정, 박진섭, 임채덕, 장철규 화성시의원, 박진영 도의원, 공병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신운범 병점1동장, 김승량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장 등과 병점1동 주민이 함께했다.

척사대회에서 지난해 공모를 치러하기 위해 선정된 대원에게 화성시장상 및 화성동탄경찰서장상을 수여했다. 상패 수여 후 대원들은 율놀이, 제기차기, 경품 증정 등 전통놀이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진형 병점1동 자율방범대장은 "화성시 어떤 봉사단체보다도 병점1동 자율방범대원들은 묵묵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소중한 봉사단체"라며 "앞으로도 병점1동을 안전하며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3월 1일,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토크콘서트

화성시가 3월 1일 오후 2시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제105주년 3·1절을 기념해 화성시 독립운동을 주제로 역사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최태성 강사가 1919년 화성지역 독립운동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고 흥미롭게 전달한다. 특히 격렬했던 화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과정 등을 중점 소개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콘서트가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순국열사들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콘서트는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고,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도 가능하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제22대 국회의원 화성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석호현

“화성시 진짜 정치인, 능력으로 증명할 것”

병점·봉담이 화성시 핵심, 100년 대계 준비해야

화성 보수 기치 살리고 시민 행복한 도시 건설

“화성시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이 바로 병점역과 봉담.” 10여년간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보수진영을 대표해 온 석호현 화성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화성시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병점과 봉담을 꼽았다.

병점역의 경우 교통의 핵심이자 문화, 관광,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화성 대표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도시 설계자 역할을 자청했다.

석호현 후보는 “병점역은 경강선, 병점신,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는 화성 교통망의 핵심지역이자, 8개 대학이 연결되는 교육도시이기도 하다”라면서 “이곳에 구청 등 관공서를 확대하고, 용주사, 용전릉, 정조 효 공원,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역사박물관 등을 건설, 연결해 화성의 핵심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소규모 병점역 앞 광장 조성 등이 아닌 100년 화성시 대계를 고려해서 병점역을 새롭게 조성, 정조의 효 사상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담지역에 대해서도 “병점선과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호평·수영·봉담 3지구가 개발되면서 도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칫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라면서 “구 농수산대학 터를 제대로 개발하고, 시민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석 후보는 병점과 봉담 이외에도 화성시의 가장 큰 맹점으로 큰 그림과 계획성 없는 도시 개발을 들었다. 시가 주체적으로 도시 개발에 나서지 못하면서 교통망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여건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석호현 후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LH 등 공공기관에 위탁해 도시를 개발하면서 시민들이 출퇴근길 교통난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면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정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분발도 주문했다. 석 후보는 “화성시 인구 50만 돌파 당시 대도시에 걸맞게 공무원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100만명을 돌파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라면서 “이는 바로 더러워진 공무원이 4선에 걸쳐 시장직을 독점하고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두 차지하면서 가져온 병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시설이 민주당 인사로 가득 차 주민은 배드민턴, 탁구를 하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10년을 지역에서 함께한 화성 보수의 대표로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내가 보수요’라고 자랑할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당협위원장 등으로 겪어 온 1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송고속도로의 지하화, 봉담과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추가 확보, 화산고 신설, 봉담고교 추가 신설, 화성시 대표 예제는 특성화

고 교육, 학교시설 현대화, 시립미술관 봉담 신설,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경로당 주차의 제도와 스마트경로당 확대, 화성등기소 신설, 수원지방법원 화성 지원 설립 등이 핵심 공약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삼성반도체,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관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재학 중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석호현 후보는 ‘화성시인 석호현’이자 ‘화성시의 진짜 정치인 석호현’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석 후보는 “이웃과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이 아닌 사람과 능력을 보고 위치지를 뽑고 지지할 수 있도록 화성시, 화성시민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라면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고 큰 밑그림을 그려 화성시 백년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행정을 담당하는 여당으로 공약은 곧 실천”이라면서 “능력으로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구 기자 news@hnews.com

제22대 국회의원 화성시을 **국민의힘** 예비후보 한정민

“동탄은 양적 성장 아닌 질적 성장 이뤄내야 할 때”

메타역 지하상가 구축 통해 상권과 교통문제 해결

인구수 비례에 맞춘 학교 설립법 개정

“누구는 동탄이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성장했다지만 동탄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동탄1신도시는 오랜 기간 도시를 완성형으로 성장시켰지만 교통, 교육, 복지 등 반도체를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수도 동탄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년 동안 동탄1신도시에 살며 주민으로서 살아왔고 주민을 위한 소통을 진행했지만, 현재 시스템과 체계 그리고 정치인의 마인드로 주민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어려워 정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로 일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소재 영향성 평가를 전담했지만 편향된 정치적 외교로 급작스럽게 추진된 소재의 국산화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본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국내 반도체 소재가 가격은 오히려 비싼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때부터 한쪽으로 잘못 치우친 정책이 기업과 연관되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직접 정계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 뽑힌 만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이자 주민들이 필요함을 정책으로 현실화 하고자 한다”면서 정책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과 동탄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동탄1신도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 교통이라고 꼬집었다. 2007년 조성된 동탄1신도시는 15년이라는 시간동안 교통 인프라를 완성했다고 하지만 매일 출·퇴근 시간 급격하게 많아지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은 완성된 것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이를 위해 메타역 기준 출입구를 어디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메타역 지하에 상가를 만들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삼성 인구나 지하상가 활성화, 원활한 교통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한정민 후보는 “현재 동탄은 GTX-C, GTX-A의 조속한 개통, 솔빛나무역 신설, 분당선 연장 등의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는 실효성 없는 대중교통 배치로 인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교통 인프라 체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화성시의 소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지적했다.

한 후보는 “화성시가 지난 7월 교육부의 공모사업 중 하나인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교육활동은 진행되지 않았고 하지만 매일 출·퇴근 시간 급격하게 많아지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은 완성된 것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로

공해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화성시를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으로 다가오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육성’을 하겠다”며 “현재 반도체는 국민과 화성시민의 삶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세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전쟁은 첨단기술 수출주도 성장구조인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불안해진 양안 관계가 TSMC를 넘어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 후보는 교통, 교육, 기업 인프라 확보를 통해 기업은 성장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화성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주최 | 한국연예예술단
후원 | 화성신문, 화성저널, 협찬 | 수원화성오산축협, 수원농협, 화성사랑회

신관극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과 함께하는
2024 화성효나눔음악회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강단(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658-12)

우양이엔지 WOOYANG ENG
CE, km3, G-CERT, INNOBIZ, 벤처확인기업

대기오염 고민 끝!
집진기 맞춤형제작 전문

- 28년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 22건의 특허 보유
- 18개 CE 인증 보유 (800개 제품)
- 환경기계 전문공사업 등록
- 기계 설비공사업 등록
- 대기오염 방지시설 맞춤형제작 전문

www.wooyangeng.co.kr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95 Tel : 031-434-2204 Fax : 031-434-2919

화성시환경재단, 시민과 만드는 탄소중립 도시 건설

탄소중립 실현의 장 '환경 포럼' 개최



화성시환경재단이 개최한 첫 화성시 첫 환경 포럼이 열리고 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16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인구 100만 돌파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00만 화성, 함께 공존하는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화성시 첫 환경 포럼인 이날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시의원,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 환

경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장을 펼쳤다. 박정재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한 후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김지환 수원대학교 교수가 맡고, 박정재 서울대 교수, 조성화 화성시환경재단 이사, 정재형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남권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환경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됐으며,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화성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시민들도 현장에서 QR코드로 환경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단은 이를 수렴해 향후 환경 관련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임성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 인구 100만을 맞이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기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성시가 앞장서서 탄소중립 도시로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협성대,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성료'



협성대학교 2023학년도 전기 학위를 수여받는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협성대학교(총장직무대리 신동욱)가 23일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자리에는 신동욱 협성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장동일 명예총장, 김두범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김기목 목사 총동문화장, 김용연 경기연회 연회장, 김태현 목사 신학총동문화, 박장규 감독 경기연회 감독, 이성조 상동교회 담임목사, 민병욱 화성신문 발행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학부와 대학원의 수장자 41명을 대상으로, 학위종별 인원은 학사 749명, 석사 44명, 박사 14명이 학위를 인정받았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황병배 신학대학장의 기도, 성경봉독, 특별찬양, 말씀, 축도, 졸업식사, 축사, 학사 보고, 박사학위 수여, 석사학위 수여, 학사학위 수여, 시상식,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학위 수여식은 신학사 32명, 문학사 124명, 행정학사 50명, 영학사 148명, 광고미디어학사 52명, 무역학사 47명, 이학사 53명, 공학사 17명, 음악학사 25명, 디자인학사 111명이 대상이다.

신동욱 총장직무대리는 "한국 교육의 교육 목표는 모든 인간을 정형화시키는 것에 있지만 여러분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다"라며 "이세

상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치는 사용해 봐야 알고 이제야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조언을 전했다.

김기목 협성대학교 총동문화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기회를 내가 잡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나가 버릴 것이다"라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성실함과 능력으로 붙잡아 세상 밖에서 펼칠길 기도한다"는 격려사를 말했다.

조기형 감독은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풍파가 많아, 역경도 많으며 저항도 수도 없이 많다. 사람들의 인생길은 험난하던 평탄하던 모든 환경의 삶은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 절대로 손에 쥐는 것은 없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 가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존귀한 여러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장규 감독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졸업을 위해 헌신해 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졸업생들이 상대가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국사편찬위원회, 화성독립운동 연구 업무협약

화성시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0일 국사편찬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화성독립운동 연구 및 전문성 강화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 심화·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화성독립운동사재를 발굴,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정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독립운동사 관련 사업 공동협력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함께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이 화성시 독립운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 독립운동의 가치



화성시와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가 '화성독립운동 연구 및 전문성 강화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역사료 수집 등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4월 15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해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해 나갈 예정이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화성소방서, 삼성배우 소방안전 컨설팅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9일 향남읍 소재 삼성배우를 방문해 소방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외국인 근로자,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특히 자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안전보드를 제작, 현장에 배부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화재 발생 시 기본적인 초기 대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



화성소방서가 삼성배우를 찾아 소방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안전보드를 배부했다.

조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소농직불금 단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신청을 받는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제도기간 종료로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요건

사건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안내문자의 URL을 통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홈페이지(133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화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및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대한열기(주)

대한열기(주)는 열처리로 설계, 제조 기술 및 자동차용 에어컨(냉동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확실한 기술과 신뢰의 브랜드 이미지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과 품질향상에 힘입어 항상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HH DAHAN HEATING CO., LTD.

대한열기(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693번길 62-7
T 031-354-3581~4 F 031-354-3585

생각정리의 강력한 도구 생각을 성과로

생각을 성과로 바꾸는 기술 **ThinkWise**

맵 : 발상 능력 대시보드 : 발상과 실행의 조감 플래너 : 실행 능력

www.thinkwise.co.kr

전 세계 1% 핵심 인재를 위한
세계 최고의 마인드맵핑 소프트웨어

씽크와이즈 아카데미 화성공인교육센터 | 010-9245-5787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화성·시흥·이천·여주 3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한눈에 보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63% 초과 100% 이하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21만원/월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35만원/월) * 추가 아동양육비 2~10만원/월	10만원/월
비고	모든 지자체 기준 동일	경기도 거주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전국 최초)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였다. 지난해 도내 5만 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

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대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 누리집(http://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892가구로, 전국 149만 4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경기도의회 Point

김태형 도의원 "도민 주거복지 향상 위한 역할 다해야"



김태형 도의원이 도민 주거복지 향상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적극적 자구책 마련 주문

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5)은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차선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

원 사업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GH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감사를 표한 후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 추진 것처럼 예산·조직·사업관리에 경협이 있는 경기도 직원을 파견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민 주거복지 사업 중 특정사업만 집중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선 7기 사례를 들며 "의회 등의 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광고선전비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도민들의 세금이 매몰비용이 된 선례가 있는 만큼 지난 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고 도시주택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 및 사업 수행 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노력에 대해 도시주택실의 관리감독을 재차 요구했다.

'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 통과

제도 개혁 등 3대 혁신과제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민중당, 부천4)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이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소위원회 활동과 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본 결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3대 혁신과제로 각종 감사 누적 지적사항에 대해 재워반 시 가장 처벌 규정 신설과 직원 성과평가 심사 기준을 정립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도록 했다. 또 경기교육 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직원의 복무관리체계 확립과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연구원의 운영 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라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3대 혁신과제가 일시적인 눈금식 대책이 아닌 전면적이고 지속적으 추진되어야 한다"라면서 "경기교육을 위한 전문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개혁을 위해 첫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혁신방안 수립, 둘째, 운영 실태조사 시민감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상임위 보고, 셋째,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을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소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전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세워야"

경기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분야별 추진과제,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했다.

업무보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비전 제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등의 추진성과와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도는 이를 토대로 향후 도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방향과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 등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실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경기도 기후위기 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신미숙 도의원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 강화해야"

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미숙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지표 등을 설명하고 "2050 넷제로 선언으로 인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경기도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추진 일자리 관련 사업 현상을 지적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진행 중인 ESG경영 컨설팅 사업 강화를 통해 기업이 갖춰야



신미숙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 일자리 전환과 대응 전략 마련, ESG관련 전문가 양성,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일자리 지표 제공 등을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Since 2010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척추·관절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일반외과 / 재활의학과 / 내과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건강검진센터

병원
인증의료기관

유효기간
(2022.12.28~2026.12.27)

14인의 전문 의료진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무균 수술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노인인공관절 무릎 수술 지원 / 긴급의료지원 사업

신재흥 병원장

척추내시경 수술 3,000례(2023년 기준)
RIWOSPINE 전체내시경 MASTER CLASS

동탄시티병원

| 진료 문의 ☎ 031.8015.3333

|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13

박은숙 시인의 '생활과 시(詩)의 동거' 14



박은숙
시인 / 매밀꽃 천서리
막국수 대표 /
시민로스쿨화성지원장

멸종 중인 굴뚝들

굳이 따진다면
검은 고래의 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궁이라 불리는 입이 있고
굴뚝은 꼬리지느러미쯤 되겠습니다

굴뚝은 흰 연기를 공중의
연안쯤에 풀어놓기를 즐겼습니다
길게 풀여지는 연기엔 깊은 수심이 그렇듯
그 혼한 매듭이나 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연기는 물처럼 흐르다가 가끔은 방향을 잃어내고
번덕스러운 바람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구들을 일컬어 고래라고도 합니다
검은 고래가 뿜어내는 흰 물줄기처럼
그 속은 검게 그을렸지만
굴뚝이 품어내는
연기만큼은 늘 흰색이었습니다

불에서 그을음을 모두 빼놓고 나면
흰색만 남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붉은색이 검은색이었다가 흰색이 되는
일종의 색조전표이기도 했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아궁이가 사라지면서
어종들이 사라지듯 공중의 연기들도 사라졌습니다
멀리까지 풀여지던 저녁은 어디에 있습니까
풍향계를 자처했던 굴뚝들은 지금
멸종 중에 있습니다

숲은 천적이었던 굴뚝들이 사라지면서
숲은 더욱 우거질 것입니다

굴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밖에 나가 놓고 있는 자식들을
불러들이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연기에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도 함께 흘러보냈으니까요.
이때쯤 공중의 연기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부엌에 계시던 엄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
뒷산에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굴뚝도 연기도 엄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굴뚝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華城春秋) ... 225 정신건강을 위해 절대 양보해선 안 되는 한 가지, 수면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
복지센터장

요즘 유행하는 단어중 하나가 "unsung"(발음:
언성, 뜻: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찬양받지 못한
이다. 여기에 히어로(hero)를 붙여서 자기희생적
인 행동을 해서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으나 유명
해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
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축구선수 박지성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할 때 "언성 히어로"라는
말로 헌신적이면서도 실력이 있지만 부각을 받지
않았던 모습을 칭찬하며 사용되곤 한다.

그런데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언성 히어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잠"이다. 건강과 행복의 언성
히어로이다. 우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이후
느끼지는 불편함에 대해 알고 있다. 집중이 안되
고 모든 대인관계에 스며드는 짜증의 감정, 안개
가 자욱한 듯한 기분 등. 이처럼 우리는 수면부족
의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

의 소중함을 자신의 우선순위 목록의 맨 아래에
놓고 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
을 시청하는 것을 수면보다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잠은 행복의 기초이다. 충분한 양질의 잠을 자
면, 몸과 마음의 시스탬을 재부팅하게 되는 것과
같다. 우선 잠은 뇌의 기능을 높여 준다. 잠자는
동안, 뇌는 기억을 통합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해
로운 독소를 제거한다. 이것은 깨어있을 때 기억
력, 집중력,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
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
잠을 못자면 면역 방어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반면에, 숙면은 감염과 더 효과
적으로 싸우면서, 몸에 보호적인 항체를 생산하
도록 돕는다. 종합비타민보다 잠이 더 좋다.

다음으로 감정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수면 부
족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큰 타격을 주어 불안,
짜증, 기분 변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충분한 수
면은 더 침착한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 나
갈 수 있도록 해 주며, 정서적 안정과 회복력을 촉
진한다. 오늘 감정기록이 심한 동료나 가족을 만
난다면 본인의 최근 수면상태가 나빴을 가능성
이 높다. 아울러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호르몬
조절부터 체중 관리까지 수면은 신체 건강의 다
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은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비만의 위험 증

가와 관련이 있다. 그 외에도 수면은 에너지 수치를
높인다. 아침에 에스프레소에 들어 있는 카페
인으로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에 빠진 느낌을 가진 채로 하루를 보낸다. 잠을
충분히 잘 자면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잠을
잘 잤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더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태합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루 일과와 씨름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수면이 정말로 필요한
가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매
일 밤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 이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 위생을 우선
시해야 한다.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수립하고, 편
안한 취침 시간 규칙을 만들고, 여러분의 수면 환
경을 어둡도록 하고, 조용하고 시원하도록 최적
화해야 한다. 잠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단순히 목만 쉬는 것
이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에 투자하고, 더 건강하
고,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위해 스스로
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의 화면
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숙면의 힘을 받아들
이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2024년 잠을 잘 자는 원인으로 삼으시
길. 좋은 꿈 꾸세요

badworker@daum.net

장시성의 건강칼럼 55



장시성
헤인샷산업 대표
법정주의 원장 / 한의학박사

브로콜리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생성
전 단계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량 영양소
이다.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칼슘과
비타민 C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브로
콜리 100g에 비타민 C가 98mg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은 브로콜리 두세
송이면 충분하다. 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
타민 E, 루테인, 셀레늄, 식이섬유 등 항암 물질들
이 다량 함유되어 발암 물질을 해독할 뿐 아니라
젊음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세포
가 활발히 생성되어 탄력 있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다.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하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브로콜리

자궁암, 전립선암, 폐암 등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는 것이 여러 역학 조사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미
국 국립암연구소는 브로콜리와 폴리플라워가 특
히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실험 결
과 2만 9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추적
조사한 바 일주일에 2회 먹으면 브로콜리는 전립
선암 발생 가능성을 45%, 폴리플라워는 52%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실험에는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은 브로콜리가 심장병 예방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농업식품화학지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게재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Sulforaphane)과
인돌(indole)화합물이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돌은 에스트로젠(Estrogen)에 민감한
반응하는 유방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칼슘의 흡수
를 촉진하여 뼈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브로콜리와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은 아몬
드와 토마토이다. 브로콜리 비타민 C와 아몬드
비타민 E를 함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브로
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배운 성분과 만나면 상
승효과가 있어 겨자, 고추냉이, 미나리, 마늘 등과
같이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좋아진다. 설포라판
은 면역 자극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테스
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체지방 유지를 억제하며

관절 파괴의 원인이 되는 특정 효소를 차단하고
운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근육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
로 인한 세포 손상에 대항하는 분자다. 이로 인해
염증반응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건강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화되는 동안 브로콜리에는 설
포라판이라는 항산화제로 전환되는 색소인 글루
코라파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눈의 산화스트레스
와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영
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브로콜리에는 정신 지하를 낮추고
적절한 뇌 및 신경조직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특정 영양소와 생리 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두가지
미네랄 인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하다. 브로콜
리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인 캠페롤도 치주염 예
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
이 함유되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참고사항: 촌촌한 꽃 봉우리 때문에 소금물에
15분 정도 담근 다음 잘 헹구고 씻어서 요리한다.
heainshot@daum.net

기사제보
구독문의
화성신문을 보면, 화성이 보인다
(031) 232-1980

대리운전만 이용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중물대리
마중물대리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한사회복지회 아너패밀리 가입
5인 이상 중소기업 법인 후불 대환영!
예비사회적기업
마중물대리
1661-0021
인류유일 공공이익

화성신문 문화사랑나눔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신문 구독료 및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로 사용한 금액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 적용(최대100만원, 공제율30%)
공제 대상자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공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결제한 경우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후원 1구좌(1부) - 금액 100,000원
후원방법 후원계좌에 입금 완료 - 화성신문 메일 또는
팩스, 전화로 신문 선물하실 곳 주소 및 연락처, 입금자 내용 전달 - 신문 우편발송 (1년)
화성신문 구독후원계좌 농협 351-0076-7779-73

조영호 교수

Leadership Inside 286

인생을 바꾼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조영호
아주대학교 명예 교수

돌이켜 보면, 1994년은 세계화라는 개념이 뜨거운 화두가 된 해였다.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신속하게 개혁과 부패 일선 정책을 펼쳐나갔다.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과거청산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보다 전향적인 비전을 내세우고 싶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세계화였다. 마침 세계는 미국 주도로 개방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어닥치고 있었다.

1994년 11월 호주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세계화'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으며,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논란이 많은 정책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추진하고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외환과 자본시장까지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1994년과 1995년은 아주 시끄러웠다.

그때 필자는 책방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이 '세계 최고를 향하여'라는 책이었다. 혹시나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세계화에 대한 해답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책을 집어 들었다. 경제학자나 정치학자가 쓴 거대 담론이 아니었다. 전남 곡성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

장에 근무하는 한 생산 반장이 자신이 회사에서 펼친 혁신 사례를 진솔하게 담은 이야기였다. 서점에서 책장을 넘겨보던 필자는 순간 이 책에 매료되고 말았다. "세계화가 뭐 별것일까? 우리 국민이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필자는 책을 속독하고 저자인 윤생진 씨를 찾았다. 그를 아주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강사로 모셨다. 강의는 통상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90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중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갖지 않고 수강생들은 100% 강의에 몰입하였으며 끝나고 모두 기립 박수까지 쳤다.

윤생진 씨는 흑산도의 어부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항상 윤생진 씨에게 "배대가 있는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러나 사춘기 윤생진은 그런 아버지 말을 들을 때마다 반항심이 생겼고,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렸다. 군대를 제대한 후 철이 들었는데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홀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다행히 금호타이어에 입사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을 받아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제안을 열심히 하여 제안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1984년 금호그룹에서 가장 제안을 많이 하여 제안왕에 선정이 되었다. 하루에 7건 정도 제안을 했다. 보통 사람은 한 달에 한 건도 하기 어려운데 말이다. 그는 그다음 해에도 연속으로 제안왕이 되었고, 1988년에는 능률협회가 한국 제안왕상을 제정했는데 그가 제1회 전국 제안왕이 되었다. 그는 품질명장에도 선정되었다.

타이어 완제품을 성형하는 가류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었다. 일본에

서 만든 것이니 누구 하나 그 성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기계에 윤생진 씨는 도전했다. "일본 기계라고 해서 결점이 없을 리가 있나?" 그는 끝까지 파고들어 공정을 10초 단축시켰다. 그 덕분에 회사는 연간 20억원을 벌 수 있었다. 들어간 비용은 단돈 12만원이었다. 윤생진 씨의 제안은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그런 그였지만, 그는 고졸 생산직이었다. 기껏해야 대리도 되지 못하고 반장으로 은퇴해야 하는 생산직이었던 것이다. 그때 필자가 금호그룹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금호그룹은 1946년에 광주에서 택시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1996년이면 50주년을 맞게 되었다. 1995년 그룹의 임원을 워크숍이 있었다. 필자는 인력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윤생진 씨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훌륭한 사원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못하면 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명예공장장' 제도라도 만들어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 앞줄에는 박성용 당시 금호그룹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필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메모하고 계셨다. 그 후 큰 사단이 일어났다. 윤생진을 대리, 과장을 건너뛰고 차장으로 특진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서울 회장 부속실에서 근무하게 했다. 과거 중 과격이었다. 윤생진 씨는 서울에 와서도 하는 일마다 열정적으로 했고, 하는 일마다 1등이었다. 그는 고속으로 임원이 되었으며, 상무, 전무 뺀지도 고속으로 달았다.

그런 그가 금년 2월 73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신에너지 개발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개신 과제는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다.

choyho2@naver.com

사설

보궐선거 양심을 지키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화성시민 일부는 국회의원 선출 이외에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도 병행해야 한다. 1명의 경기도의원과 1명의 화성시 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함께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보궐선거가 가장 많은 곳이 화성이다.

이번 총선과 더불어 전국에서는 총 4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이뤄진다. 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 2명의 기초단체장과 16명의 광역의원, 25명의 기초의원 대상이다.

당선후호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지기도 하고 사망 등 원인으로 각각이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지지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직을 사직하면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기본적으로 선출직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국민의 신임으로 당선된 만큼 임기 동안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서로 간에 있는 것이다.

사퇴 후 총선 출마의 변도 다양하다. 보다는 정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간에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신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다.

총선 출마를 원했다면 2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됐다. 지방선거를 총선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서는 안된다. 보궐선거 비용도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으로 피해는 국민

들이 보는 셈이다. 당연히 사퇴자들에게 대한 총선 배제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 소통 24에도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사퇴 후 다른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됐다.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 목소리다. 선거 때마다 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의 문제도 크다. 자신의 당에서 사퇴가 이뤄졌다면 그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다.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결국은 사퇴 의원은 물론 공천을 준 해당 당에도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에서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할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경기도의원의 7선거구와 국민의힘 공영에 화성시의원의 가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23일 현재 경기도의원을 뽑는 화성시 제7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1명의 후보가, 화성시의원을 뽑는 가선거구에서 국민의힘 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당 의원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보궐선거가 돼야 한다.

이동종의 반려견 이야기 12



이동종
애견훈련사
연암대학교 교수

반려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각 분야별 주어진 역할에서 매너 있는 시민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2살은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는 시기이다. 수컷은 중견으로 암컷은 어미 개로 거듭난다. 성견

2년~8년 활동성이 가장 왕성한 정년기 성견 시기

이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 고집도 형성되고, 자신감이 넘쳐나며 성장하면서 아주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기도 한다.

경계성과 자기주장이 형성해, 보호자의 리더십이 떨어지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또한 소극적인 반려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강아지 시기 아무것도 모르다가 퍼피 시기 사회화 과정을 지나면서 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시기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넘치는 성견인 경우 자기주장과 고집, 서열, 영역의 공격성 모든 것이 자리 잡는 단계이다. 올바른 반려 생활을 유지하다가도 잘못된 경험에 의한 이상 행동이 시작하면 교육을 통한 개선도 어려워진다.

암컷의 경우 새끼를 낳고 보호자에게 보호 받던 단계에서 모성 본능의 단계로 거듭나며, 수컷

은 리더의 우두머리와 종족 본능, 자손을 볼 수 있는 어른이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최고로 에너지가 넘치고, 교육의 과정에 따라 목적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다.

아름다운 균형과 몸매, 골격 형성되는 2~5살 정도의 시기에는 신체의 변화, 몸의 균형도 알맞게 형성되어 일반 외모로도 가장 아름답다. 개들의 움직임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한다.

장모견들은 서서히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개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리고 기르는 환경과 보호자의 취향에 따라 미용 관리를 하면 된다.

생후 2~6년 정도가 개들의 활동 범위가 가장 왕성한 시기로 개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년기에 해당한다.

성견 시기 관찰 포인트

- ① 반려견 2년이면 사람의 나이로 성인에 해당된다.
- ② 수컷과 암컷은 종모견 (암컷 18개월, 수컷 24개월)
- ③ 성견의 고집이 형성되며, 교육의 효과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④ 경계심과 자기주장이 강한 시기이다.
- ⑤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단계에서 어미 개로 거듭난다.
- ⑥ 알파 우두머리가 정해지는 단계이지만 수시로 도전하기도 한다.
- ⑦ 반려견의 활동 분야에서 성숙된 활동을 한다.
- ⑧ 노련한 반려생활로 가족과 함께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단계이다.
- ⑨ 일반 외모, 신체가 성숙하고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 ⑩ 개의 활동량이 뛰어나며, 에너지가 넘친다.
- ⑪ 특수 목적견은 생후 2년~8년 활동한다.
- ⑫ 성견의 시기에 짓음과 공격성 문제가 생기면 더욱 심해진다.
- ⑬ 서열의 행동 변화에서 도전 의식은 높아지고 리더가 되기 위한 행동은 강해지면서 포기 의사도 줄어든다.
- ⑭ 예절교육과 복종 교육은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시켜 준다.
- ⑮ 암컷은 번식을 통해 주변 환경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⑯ 올바른 반려 생활과 활동의 정년기로 지혜롭게 활동하는 가장 활동성이 좋은 시기이다.



화성의 정론지 화성신문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신문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만들어집니다
월구독료 1만원 ※자동이체를 희망합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1-0076-7779-73 (주)화성뉴스 문의 (031)232-1980

- ▲홍치유 ▲이상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주)남경 ▲진석범 ▲황정화 ▲김영미 ▲최선덕 ▲연돈원 ▲박대선 ▲석우초등학교 ▲마도기업인협의회 ▲(주)화성합동 ▲이호경 ▲(주)마중물대리 ▲(주)헤인샌더 ▲대한토지개발 이명후 ▲오보환 ▲원영현 ▲(주)나앤나 ▲진양테크 ▲(주)한서정밀 ▲양진춘 ▲김정아 ▲윤태하 ▲태광테크 ▲이현중 ▲천광인 ▲이해남 ▲(사)한국음악협회화성시지부 ▲차호원 ▲화신지관산업 ▲화성도서관 ▲김종복 ▲삼고고등학교 ▲우정초등학교 ▲(주)한국티알 ▲김근영 ▲성산초등학교 ▲화성교육센터 ▲도서관정책과 ▲서신초등학교 ▲(재)화성산업진흥원 ▲노작홍사용문학관 ▲이산고등학교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감우석 ▲김소연 ▲박두환 ▲이건 ▲이광석 ▲이유리 ▲최경선 ▲최형희 ▲방희복 ▲화성오산교육 ▲화성시여성청소년 가족재단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화성소방서

화성문화원 제62차 정기총회 성료



화성문화원 제62차 정기총회 모습.

유지선 원장 “도시 브랜드 강화와 지역문화 우수성 창달에 최선을”

화성문화원(원장 유지선)은 22일 컨벤션 더 힐에서 2024년 제62차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철수 화성시연구위원, 정희준 송호·지학 장학재단 이사장, 송선영 시의원, 이용운 시의원,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문화원 이사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총회는 1부 기념식, 2부 의안심의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화성시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류순자 이사, 송진호 이사, 정인자 회원이 화성시장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김창겸 농협화성시지부장, 장봉균 ㈜오스방음소재 대표, 전호경 ㈜하얀소금 대표, 이철우 극동철강 대표가 감사패를 받았다.

유지선 문화원장은 “화성시는 그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신규 시민의 유입과 다양한 생활환경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발굴, 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관련 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성시 문화선도에 힘쓰고, 화성시 도시 브랜드 강화와 지역문화의 우수성 창달, 명품인문도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희준 송호·지학 장학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혼자 밥 먹

고, 결혼도 안 하고 인구 쪼벌에 도달했는데, 이는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인간미를 키우지 않고 문명 이기인 핸드폰만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사회적 리더들이 자신들이 함께 사는 공동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 노력해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2부 의안심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보다 1280만원이 줄어든 2억 1919만원이며, 보조금 예산은 16억 6575만원이다.

이어서 감사보고를 할 때 회원 이 모 씨가 2023년 직원들 시간의 근무수당이 문화원 기준보다 많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문화원 운영 미숙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유지선 문화원장은 “원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화성문화원은 2023년 문화원 최초로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 ‘화성문화대학’을 시작해 100명에 근접한 수요생을 배출했고, 최초의 세시풍속축제 ‘단오풍정’, 삼복 더위사냥도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4년에는 문화교육사업,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사업,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위탁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인재를 찾습니다

(문의 : 화성시일자리센터 031-5189-4211~3)

회사명	소재지	모집직종	인원	근무형태	급여
주식회사제이메이앤씨	화성시 서신면 전곡신단9길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주 5일	연봉 3,000만원 이상
일성산업	화성시 마도면 청연로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주 5일	월급 230만원 이상
동국메카지	화성시 장안면 화곡로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주 5일	월급 200만원 이상
(주)삼보고분자	화성시 서신면 전곡신단4길	도로·인크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1명	주 5일	월급 240만원 이상
(주)다엔에스	화성시 송산면 송산사로239번길	배송·납품 운전원(남/동/영 포함)	1명	주 5일	월급 250만원 이상
베스트아이들병원	화성시 동탄지성로	주차 운전원	1명	주 5일	연봉 3,000만원 이상
(주)안테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편로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1명	주 5일	연봉 2,600만원 이상
유한회사창명	화성시 남양읍 현대가10로487번길	일반 영업원	4명	주 5일	연봉 3,200만원 이상
주식회사스페이스루테	화성시 병점중앙로170번길	인테리어 디자이너	1명	주 5일	연봉 3,000만원 이상
푸른지역이동센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주방 보조원	1명	주 5일	시급 9,860원 이상
동원환경기술주식회사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경리 사무원(일반사업체)	1명	주 5일	월급 240만원 이상
대원산업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460번길	배송·납품 운전원(남/동/영 포함)	3명	주 5일	월급 210만원 이상

스타트업 탐방 (주)오토트 오준호 대표

세계 최초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개발

암 찾아내고, 예측하고, 치료하는 Totalcare System 구축 목표

기자가 두 번째로 방문한 스타트업은 안전하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엑스레이를 연구하고 개발해 온 (주)오토트이다. 오토트는 포터블 엑스레이 시장이 없던 시절부터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진단 AI 소프트웨어’ 및 ‘산업용 CT’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본사는 광주에 있고, 동탄, 원주에 지점을 두고 있다.

서급서급한 인생의 오준호 대표는 “100년 전 рент겐에 의해 엑스레이가 개발된 이래 엑스레이 기술은 별로 진보된 적이 없죠.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적인 진단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엑스레이가 없거나 고장나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활용성에 착안해서 초저선량, 슈퍼 경량화로 대체시설이 필요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동남아 다수 국가, 중동, 러시아 등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장비로서 활발히 수출하고 있습니다”라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오 대표는 조선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 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 설계를 했다. 그러다가 1997년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했는데 IMF의 직격탄을 맞고 풀쩍 망했다.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2001년 조선대학교에 교직원으로서

들어가 병원쪽에서 근무하게 됐다. 어느 날 장난삼아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분에게 “직원끼리인데 그냥 X-ray 좀 찍어 줄래?”라고 부탁했다가 X-ray 피폭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 당했다. 부아가 치밀어오른 오 대표는 “그러면 피폭이 안 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꼭 피폭을 시키냐?”고 반문했다. 그랬더니 “당신이 한 번 만들어 봐”라

고 한 것이 발단이 돼 저선량 X-ray 개발의 길로 나서게 됐다. ‘만약에 영상 만드는 데 굳이 방사선이 없어도 된다면 그걸 한번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계속 연구했다.

학교의 업무와 개발 업무를 병행할 수 없게 되자, 오 대표는 과감하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HDT(주)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과거 폭발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뛰쳐나와 사업을 할 수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젊었으니까요”라고 간단히 답했다. 주위에서 모두 만류하던 이때, 평소 돈 쓰기에 짜기로 유명한 학교 선배 ㈜무진서비스 최은모 대표가 “네가 진짜 사업을 하겠다면 투자하겠다”며 3억원을 내놓았다. 이 돈이 개발 자금의 시드머니가 된 셈이다. 회사 형편이 좋지

아져 이 돈을 갚겠다고 했더니 최 대표는 “내가 너에게 투자했듯이 너도 3억씩 10곳에 투자해서 후진을 양성하라”며 돈을 받지 않았다. 오 대표는 이런 최 대표를 사부라고 부른다.

2016년 드디어 세계 최초로 저선량 엑스레이를 개발했다. 몸을 투과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광선을 필터링하고, 전자를 가속시키는 Tube를 자체 개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동차 설계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오 대표는 오토트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을 조만간 전 세계에 오픈하고 향후 AI를 이용한 분석과 예측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8년~2020년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2021년 강원규제특구 임시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코로나 감염환자가 병원에 방문만 해도 병원을 3주간 폐쇄해야 했기에, 야외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X-ray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와준 것이다.



마인올뉴 (포터블X-ray)

규제자유특구 실증 제품들 중 유일하게 (주)오토트의 Portable X-ray MINE ALNU만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허가로 전환된다.

현재 병·의원(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원, 구급차, 병원선), 대한결핵협회 전국 지부, 서울특별시 25개구 보건소, 전국 국군병원에 설치돼 있다.

오 대표는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 “초저선량 포터블 엑스레이로 체온과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포함한 AI 기반 진단 통합시스템 장치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포터블 CT를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측정과 결막으로 빈혈을 측정하는 장비, 활동성·비활동성 결핵 진단 등도 개발 예정입니다. 이렇듯 진단 분야를 총망라하여 단순히 영상을 보고 진단하는 것을 넘어 예방까지 가능한 의료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라며 Total Healthcare System 구축 계획을 신나게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토트는 인터뷰 당일 대한결핵협회와 AI를 이용한 결핵 진단 관련 계약을 맺고, 40억원 투자를 받았다. 금년 내에 일반투자자로부터 2차에 걸쳐 2200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Total Healthcare System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미 개발은 끝나고, 제품화만 남은 단계라고 자신한다.

오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하드웨어 설계 프로그램, 구조 설계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Tool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매출 시 담보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Tool이 없으면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데, 현재 화성시에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단지 진단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단기 목표이며, 보급형 CT, 또 그와 결합된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 중장기 목표이고 암을 찾아내고, 예측하고, 치료까지 해서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야심찬 목표가 이루어져 2026년에는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나만의 특별한 공간이 필요할 때, **모두의 창고 | 캐리박스**

기업형 셀프스토리지

- ☑ 불용자산, 재고, 문서 등으로 여유 공간 필요할 때
- ☑ 신규 창고를 투자 고민하는 기업

☎ 화성점
창고 문의: 1566-9700

혼자 이사 어려울 때, **캐리박스**

소형, 원룸이사

- ☑ 딱, 3분으로 합리적인 견적 받기
- ☑ 예약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 이사 문의: 1566-0024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물류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 관계사: 종합특수, homisoft 호미소프트, 114공차정보, 영광종합운수, 위너스자산운용